

문학작품과 지역성*

- 윌라 캐더(Willa Cather)의 경우-

권택영

어느 작가의 작품들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그 지역은 작품과 작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때로는 주제를 결정짓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피체랄드(F. Scott Fitzgerald)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대부분 중서부의 시골출신이고 그가 부딪치는 상황은 동부의 부유층이다. 순진하고 성실한 꿈을 지닌 주인공과 부유하고 세련된 유한계층의 대비는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포크너(William Faulkner)에게 있어서 남부의 미시시피 지역은 작가의 상상력이 구현되는 무대이다. 남부의 전통, 역사, 그리고 흑백의 관계는 포크너 작품의 소재이며 동시에 주제이다. 이밖에도 마야크·트웨인의 미시시피 강가, 나타니엘·호손의 뉴잉글랜드 지방등,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작가가 특정한 지역을 작품 속에서 상황으로 설정하는 예는 많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포크너나 피체랄드를 지역작가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들의 작품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넘어서 보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어느 작가의 작품이 지역성과 보편성을 지니면서 동시대의 작가들 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 1910 년과 20 년대의 미국작가로서 윌라 캐더(Willa Cather)는 동시대를 살았던 싱클레어·루이스나 드라이저, 그리고 헤밍웨이나 피체랄드보다 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비평가들의 주목도 덜 받아온게 사실이다. 문학적인 열정과 성취도, 그리고 개별작품의 예술적 가치등이 결코 루이스나 드라이저만 못 하지 않은데 그녀의 작품이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류 작가이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의문은 학술적 연구에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19세기 영국의 제인 오스틴이나 조지 엘리엇의 작품이 여류이기에 디킨즈나 하디의 것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듯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같은, 그러면서도 읽어보면 의외로 좋은 작품들을 썼던 윌라 캐더(1873~1947)의 경우를 통해 문학작품과 지역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우선 그녀의 대표작들 가운데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지역을 배경삼은 작품들을 고른다. 그 작품들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담고있고 어떤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가 분석한다. 그리고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가 알아본다. 그리하여 무엇이 그녀의 작품을 루이스나 드라이저, 혹은 피체랄드의 것만 못하게 했는지 드러내 본다. 말하자면 이 논문은 캐더의 작품에 나타난 지역성은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으로 부터 출발한다.

* 이 논문은 1987년 가을 영어영문학회 목요강연 시리즈에 발표되었던 것으로 <문학작품과 지역성>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쓰여진 것임.

〈캐더와 지역성, 보편성〉

1873년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캐더는 10살 때 가족을 따라 네브라스카 주로 이주해서 다음 해부터 레드 크라우드란 작은 마을에 살게 된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아일랜드로부터 이주해온 그녀의 조상은 양측이 모두 전형적인 버지니아인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중서부 개척지로 이주하던 때 끝없는 대지 위로 마차를 몰고 새로운 땅을 찾던 어린 캐더의 뇌리에는 그때의 경험이 〈인간의 개성이 무한한 대지 속으로 희석되는 듯한 감흥〉으로 두고두고 간직된다. (“It was a kind of erasure of personality.”)¹⁾ 인간과 자연이 한 몸이 되는 이 감흥은 성장한 후 작가의 상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착한 네브라스카의 평원에서 캐더의 흥미를 끈 것은 미국의 원주민들 보다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로부터 갓 이주해오는 이민들이었다. 개척민으로서 그들이 겪는 두려움, 언어장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등은 그녀의 예민하고 지적인 감수성을 자극했다. 17세 때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 입학한 캐더는 20세부터 「네브라스카 주립저널」에 연극평론을 쓰기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피츠버그로 가서 「월간 가정」(*Home Monthly*)의 편집 일을 맡는다. 잡지사의 일을 보면서 마음 속에는 늘 쓰지 못한 소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1901년 부터 6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직을 맡고 다시 6년간 *McClare's* 지에서 일한 후 본격적인 창작의 길로 접어든 것은 마흔이 다 되어서였다.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캐더는 약 14권의 소설과 1권의 단편집을 출간했다.²⁾ 이들 가운데 대표작이며 동시에 네브라스카를 배경으로 삼은 소설로는 「오, 개척자들이여!」(*O, Pioneers!*, 1913), 「나의 안토니아」(*My Antonia*, 1918),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One of Ours*, 1922), 그리고 가장 잘 쓰인 단편으로 인정받는 “이웃 영감 로지키” (“*Neighbour Rosicky*”, 1928)를 들 수 있다. 이제 이 작품들 속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과 그것을 연결짓는 공통 주제를 알아보자.

어린 시절의 시적인 감수성과 대학시절의 지적인 호기심의 배경이었던 네브라스카 지역을 떠난 캐더는 피츠버그, 뉴욕, 유럽여행, 그리고 보스턴 등 세련된 문화의 전통을 찾아 성년시절을 보낸다. 잡지의 편집이나 가르치는 일을 하며 음악이나 연극에 관한 평론을 쓰기도 하고 한 때는 가장 존경했던 헨리 제임스의 예술론이나 기법을 모방한 작품을 쓴 적도 있으나 그런 것들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1912년 어느 날, 작가 Sarah Orne Jewett는 캐더에게 타인을 모방하려 들지 말고 자신의 세계를 키우라고 충고한다. 남성시점(*man's point of view*)을 버리고 그녀의 정수, 그녀만이 갖고있는 참 모습을 찾으라는 것이다. 긴 방황은 오직 고향으로 되돌아 오기위한 여정이었다고 할까, 그녀의 진수는 네브라스카

¹⁾ Philip Gerber, *Willa Cather* (Boston: G.K. Hall & Co., 1975), p.20.

²⁾ 캐더의 주요작품으로는 *O, Pioneers!* (1913), *The Song of the Lark* (1915), *My Antonia* (1918), *One of Ours* (1922), *A Lost Lady* (1923), *The Professor's House* (1925),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1927), *Shadows on the Rock* (1931), *Lucy Gayheart* (1935), *Sapphira and the Slave Girl* (1940) 등의 장편소설과 단편집으로 *Obscure Destinies* (1932).

평원에 뿌리내린 개척자의 정열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초월하려던 네브라스카의 높은 동부의 도시를 20년간 떠돌던 순간에도 그녀의 몸 안에 잠재되어 꽃 피울 날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방랑은 값진 것이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야만 자기 세계를 알 수 있듯이 도시생활은 그녀에게 고향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녀의 작품에는 도시와 평원이 대조를 이루면서 고향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스한 시선이 깔려있다.

캐더가 자신의 진수를 포착한 첫 작품은 「오, 개척자들이여!」이다. 그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습작해오던 예술가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토지에 대한 개척민의 태도에 비유된다. 예술가에게 필수적 요건으로 생각되었던 <상상력>과 <의지>는 개척자가 토지를 대하는 자세이기도 한 것이다.

여주인공, 알렉산드라는 두 남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토지를 지킨다. 마음 속의 지주였던 카알은 화가가 되기위해 도시로 떠난다. 어느덧 16년이 흘러 그녀는 농장주가 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인 자유로운 삶에의 동경을 막내동생 에밀에게 무한한 기회를 줌으로서 충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에밀은 어릴 적에 만남 적이 있는 아름답고 정열적인 마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마리는 이미 알렉의 아내가 되어 이웃에 살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내성적인 에밀은 그녀를 단념하려 애쓸수록 더욱 그러지 못했고 지칠고 질투에 가득 찬 남편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마리 역시 에밀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도시에 나갔던 카알이 실외에 차서 귀향하고 두 동생의 몰욕은 카알을 누나에게서 빼어 놓는다. 한동안 남녀간의 사랑이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며 전개되다가 어느 순간 에밀은 마리와의 격정에 휘말리며 소설은 절정에 이른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두 남녀를 한꺼번에 잃은 알렉산드라는 감옥에 갇힌 마리의 남편을 찾아가 그를 용서하므로서 정신적인 부활을 맞는다.

작가의 음성을 대변하는듯한 카알은 에밀과 마리가 알렉산드라의 <최선> (the best) 이었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죽음을 인간외지의 한계로 받아들이라고 위로한다. 너무나 아름답고 정열적이었던 마리는 보는 이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파괴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삶의 모순과 인간외지의 한계, 분명히 마리는 비평가들의 언급처럼 의도적인 유희자였다기보다 타고난, 어쩔 수 없는 숙명의 희생이었다고 보는게 더 옳은 해석인것 같다.

에밀의 죽음을 통해 알렉산드라는 인간의 삶이 타인에 의해 구조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에밀은 그녀가 이루지 못한 꿈의 대리수행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카알에 대한 내밀한 사랑을 에밀이 짐작할 수 없었듯이 그녀 역시 에밀의 마리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연민에 빠져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보다는 오히려 카알이나 마리가 더 정확히 타인을 이해한다. 알렉산드라는 에밀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를 소유하려는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지 못한다. 비록 그녀가 토지를 놓고 게걸스럽게 다투는 두 남동생과는 달랐지만 에밀을 잃고 나서야 그녀는 토지에 대한 태도를 달리한다.

“ - - - We come and go, but the land is always here. And the people who love it and understand it are the people who own it – for a little while.”³⁾

땅이란 정성껏 일구고 가꾼 만큼의 결실로서 보답하지만 어느 누구의 소유물은 될 수 없다. 인간이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음과 같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잠깐동안 세상에 살다 가지만 자연은 영원히 살아 그의 후손들을 지켜본다. 그러기에 인간도 자연도 사랑하고 가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복하고 소유하기 위함은 아니란 것이다.

고통 속에서 인간의지의 한계와 삶의 모순을 배우고 아무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겸허한 교훈을 얻는 여주인공의 정신적 성숙 이것이 「오, 개척자들이여!」를 단순한 베브라스카 어느 작은 마을의 개척이야기로 멈추게 하지 않고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문학작품이 되게 하는 이유인 것 같다.

이 작품에서 농촌과 도시의 삶은 땅을 지키는 알렉산드라와 대도시를 전전하며 예술의 꿈을 성취해보려는 카알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나 여주인공의 개척과정은 생략되듯이 카알의 방황도 현실감있게 묘사되지 않는다. 이런 생략법은 다른 작품에도 나타난다. 충실하게 경과를 묘사하는 견고한 사실주의 기법이라기 보다는 작가가 과거에 겪은 개척시절 이야기들을 에피소드식으로 결들인 이 작품은 그런대로 유기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 삼인칭 서술로서 간결하게 다듬어진 산문은 자연스럽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작가의 깊은 인간적 통찰을 드러낸다. 캐더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소설적 구성을 갖추고 평원을 소재로 한 작품가운데서 가장 보편적 주제를 담은 듯한 작품이다.

이제 캐더의 대표작으로 언급되는 「나의 안토니아」에 이르면 지역성은 좀더 강렬한 색채를 띄운다.

「나의 안토니아」는 소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짙막한 〈머릿글〉로 시작된다. 작가는 어느 날 중서부 평원을 가로 질러가는 열차에서 옛 친구였던 짐 버든을 만난다. 그는 서부 철도회사의 법률고문으로 직업적으로 그런대로 성공했으나 열정이 없는 냉정한 성격의 부인과 뉴욕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 대도시에서 사는 두 사람은 고향의 의미를 공감하며 그들에게 “나라였고, 상황이었고 어린시절 모험의 전부”였던 어느 보헤미아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는 듯하다. 얼마후 짐 버든은 보여주기로 약속했던 원고문치를 들고 작가를 찾아와 곁장에 “나의 안토니아”라고 표기한다.

캐더는 이 〈머릿글〉을 통해 몇가지 효과를 노린 듯하다. 나타니엘·호손이 「주홍글씨」의 서문에서 새일림의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역사를 허구화시키는 수법과 비슷하게 이 기법은 첫째, 서술을 작가의 분신인 짐 버든에게 떠맡김으로서 과거의 경험을 자연스레 허구화 한다. 따라서 소설의 형태가 완벽한 구성을 벗어나 과거의 일들을 느슨하게 엮어나가도 그 책임은 짐 버든에게 있다. 둘째, 안토니아는 그들의〈나라〉요, 〈상황〉이었기에 짐 버든의 객관적

³⁾ Willa Cather, *O, Pioneers!* (Boston: Houghton Mifflin, 1913, 1947), p.308.

서술이 필요하다. 만일 그가 안토니아와 열정의 관계로 휩쓸리면 그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어려워진다. 안토니아와 짐의 관계가 마치 헤즈비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성(性)이 약화되어 있다는 비평가들의 불만은 주목할만 하다.⁴⁾ 그러나 독자는 짐이 이 소설에서 어느 여자와의 성관계에서도 거세된 듯한 느낌을 쉽사리 갖게된다. 제 3권에서 레나와의 관계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오, 개척자들이여!」를 읽지 않은 경우엔 자칫 윌러 캐더는 남성을 화자로 등장시켜 남녀관계를 제대로 묘사할 줄 모르는 작가였다고 일축해버릴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빠져나갈 출구는 마련되어 있다. 비록 애정은 없으나 짐에게는 아내가 있고 그녀는 안토니아와 아주 다른 타입의 여성이다. 아내에게 안토니아의 열정적인 삶에의 헌신을 보여주고 반성을 촉구하려 했던지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이와 같은 특이한 서술방식은 평원속의 안토니아를 객관성있게 돋보이므로서 작가는 하나의 개성을 창출해 낸다.

어린 시절, 베브라스카의 평원으로 이주해 온 짐은 보헤미아에서 갓 이민은 안토니아에게 영어를 배워주며 이민 온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애환을 지켜본다. 안토니아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⁵⁾, 우크라이나의 깊은 밤, 늑대의 울음소리에 신부를 내던진 파벨과 피터의 슬픈 과거, 안토니아의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했던 말린 버섯등에 얽힌 인간의 애절한 소망과 실의는 읽는 이의 가슴에 선명히 살아 남는다. 들쥐조차 그리워지는 교육은 인간에게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겸손함과, 욕심을 버렸을 때 얻게되는 충만감을 안겨준다. 아버지를 잃고 읍내에 나가 고용살이를 하면서도 안토니아는 구김살없이 산다. 냉정한 계산에 의해 삶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기에 그녀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향에 돌아와 쿠작농장을 이룩하고 많은 아이를 낳고 떠들썩하게 살아가는 안토니아를 다시 찾은 짐은 아이 하나 없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캐더의 안토니아는 일찌기 에머슨과 휘트먼이 동부에서 구가했던 자긍(self-reliance) 철학과 원시적 생명력의 서부적 화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지칠줄 모르는 강인한 자연의 일부이며 동시에 모방을 모르는 순수한 열정이다. 독립심과 생명력이 넘치고 풍요한 상상력과 명백한 것을 사랑하는 소박한 성격은 세련되고 이성적이지만 한 온갖 제약과 냉정한 금기를 거부한다. 음식 만들기를 즐기고 아이 돌보기를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며 불꽃같은 정열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작가 자신이 이룰 수 없고 누릴 수 없던 요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세련되고 아름답고 직업적으로 성공하지만 언제나 고독하고 가족이 없는 레나, 티니, 그리고 짐까지도 안토니아와 대조된다. 눈 먼 다르노의 에피소드 역시 원시적 재능과 본능적 정열을 상징한다. 비옥하고 풍요하고 활력에 넘치는 쿠작농장에 비하여 지위와 돈은

4) 안토니아와 짐의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 Deborah G. Lambert, "The Defeat of a Hero: An Autonomy and Sexuality in My Antonia," *American Literature*, Vol.53, No.4 (Jan. 1982), pp.762-776. Richard Giannone, "Willa Cather and the Human Voice" in *Five Essays on Willa Cather* (Mass: Merrimack College, 1974), pp.21-49, 등이 있다.

5) 안토니아의 모델인 Annie Sadleck 과 그녀의 아버지에 얽힌 이야기는 1912년에 발표한 단편, "The Bohemian Girl" 에서 언급된다.

언었으나 침체되고 단조롭게 살아가는 해나와 집의 삶은 고독하다.

네브라스카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작가가 어릴적에 겪은 경험들을 상상력으로 채색시킨 이 작품이 지역성을 넘어서 보편성을 지향하는 근거는 자궁의 철학과 원시적 생명력의 찬양에 있다. 비슷한 시기의 영국작가 D.H 로렌스는 남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원시적 생명력을 찬양했다. 그는 인간을 억압하는 차거운 이성, 물질과 기계문명, 사회제도등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온갖 제약을 거부했다. 윌라 캐더는 로렌스와 비슷한 주제를 개척민들의 용기와 정열을 통해 그려낸다. 개척정신과 관련되기에 안토니아의 열정은 미국적이며 캐더가 살아 온 “나라요, 상황이요, 모험의 전부”이다.

정열과 냉정, 모험과 안정의 대비는 다음 작품 (One of Ours)에서 옛것에 대한 향수와 현재의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한층 선명히 드러난다.

1922년에 출간된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은 더 이상 안토니아가 살던 시대의 네브라스카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개척시절은 향수 속에서만 되새겨 질 뿐 이제 기계와 물질문명은 대지를 오염시키고 인간의 순수한 열정을 채색시킨다. 루이스 (Sinclair Lewis) 나 앤더스 (Sherwood Anderson)의 작품에 나타나는 1920년대 미국 중부의 상황이다.

주인공 크라우드 (Claude Wheeler)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개척이민 2 세이다. 아버지는 자신감에 차 있고 침착하고 너그르우며 대인관계에 능숙하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복종적이며 자식을 사랑하며 가정을 손색없이 꾸려간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식들의 교육이나 감성, 그리고 내면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타인들의 이야기만을 믿고 크라우드가 원치 않는 뱀플 칼리쉬에 입학하도록 설득하며 아버지는 중요한 환경을 이루어 놓았다는 자신감과, 더 편리하게 사는 방법등 실용주의적 관심으로 딱 차 있다. 돈을 더 벌고 땅을 더 사들이고 새로 나온 편리한 기계를 구입한다. 그리고 그외에는 낭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신적인 방황을 다스리는 문화적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환경에서 큰 아들은 사치스런 아내를 맞아들여 돈을 낭비하고 둘째 아들은 돈을 경멸하며 무력함에 허덕이고 셋째 아들은 기계, 보석, 자동차등 새로운 고안품에 열안이 되어 있다.

둘째 아들인 크라우드는 이와 같은 환경에 적응할 만큼 능동적이거나 타협적이지도 못하고 그곳을 탈출한 만큼 상상력과 의지가 강하지도 못하다. 목사의 설교에 의해 뱀플칼리쉬를 권유하는 어머니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대학생활을 전혀 즐기지 못한다. 안정과 침체를 거부하고 도전과 모험을 추구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지만 그것을 성취시킬 구체적인 실천력이 없다. “가진 자는 그것의 노예이고 안 가진 자는 그들에게 노예”⁶⁾라는 생각을 하며 물질에 대해 회의론 느끼고 기계를 증오하고 원치 않는 대학에 다니는 스스로를 자조한다.

대학시절 링컨에서 어울리게 된 어릴적 가족은 가난하지만 물질과 기계보다 인간정신의 충만을 위해 돈을 쓰는 활력에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이 부러운 크라우드는 스스로를 모험 속에 먼저 정신적 충만을 누리길 싶지만 결국은 다시 시골 농장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

⁶⁾ Willa Cather, *One of Ours*, (New York: Alfred A. Knopf, 1922) p.80.

렇다고 천구 어네스트처럼 자기일에만 충실하므로서 주위나 세상 일에 무관심할 수 있지도 못하다. 정직, 절제, 소박함등 중부적 기질을 지키며 우정과 자긍의 철학에 철저한 어네스트와 달리 크라우드는 늘 주위환경에 대해 불만과 회의적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결혼을 하고 농사일에 집착하므로서 자존심을 찾으려는 크라우드는 안토니아와 같은 열정적인 여인을 만나야 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려 했고> 결혼까지한 유니드(Unid)는 정반대 타일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복종적이었으나 어떤 종류의 열정도 싫어하는 차가운 성격의 여인이다. 우수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물을 지시하지만 독립심이 강하고 가정보다 자신의 일을 중시한다. 그녀가 의식적인 채식주의자라는 것은 차갑고 정이 메마른 성격을 잘 표현해주는 일면이다. 안토니아가 자연이나 원시적 생명력의 일부라면 그녀는 물질문명이 초래한 자연과의 유리, 즉 물화현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안토니아와 유니드의 비교는 건강한 개척세대와 오염된 2세대의 상황에 대한 대조이기도 하다.

개인의 내부에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아내에게서도 배반감만을 맛본 크라우드는 도피구를 찾아야만 했다. 더 이상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그는 천화(戰火)에 휩쓸린다. 참전을 해서라도 안정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위기의 자유를 맛보려는 것이다.

소설은 중반부 부터 전쟁이야기를 엮어간다. 사건별로 느슨히 연결된 전쟁담은 현실감이 결핍되어 참전경험이 없는 여성작가의 한계를 드러낸다. 소재가 개척이든 전쟁이든 윌라 캐더는 현장감을 배제하고 상상력 속에서 취사 선택한 <회고적 진실>을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하고 박진감 없는 전쟁담은 「나의 안토니아」나 「대주교의 죽음」에서 보여주는 삶의 통찰력이나 활력이 결핍되어 이 책을 실패작으로 이끈다. 1923년 풀리처상을 수상했으나 서술이 길고 산만하여 비평가의 안목에서 제외되기 일췌이다. 여성작가가 전쟁소설을 다룰 때의 한계를 기법으로라도 극복하지 못한 채 소설은 주인공의 전사로서 막을 내린다.

서술기법이 지루하고 침체되어 있듯이 주인공은 끝내 무기력에서 자신을 구제하지 못한다. 전후 생존자들이 환멸 속에서 자살하는 예를 들면서 작가는 크라우드가 그런 환멸을 맛보기 전에 모든게 잘 될 것을 믿으며 죽었노라고 말한다.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는 크라우드가 스스로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끝까지 현실도피적 태도를 취한 패배한 이상주의자로 비친다. 3년 후에 출간된 헤밍웨이의 (The Sun Also Rises)의 주인공과 묘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전쟁의 무의미함과 전후의 환멸을 견디는 방법을 보여 준 헤밍웨이의 주인공과 전후의 환멸을 외면하는 캐더의 주인공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소설의 지역성과 보편성을 잠깐 드러내 보자.

이 소설의 배경은 더 이상 개척시대의 네브라스카 지역이 아니다. 토지는 개간이 되어 개인의 소유지로 변했고 개척민들의 삶은 안정되고 부가 축적된다. 사람들은 활력과 모험심을 잃고 기계와 물질문명에 길들여 진다. 열정, 용기, 희생정신의 자리에 환락, 소유욕, 냉정한 이기주의가 들어선다.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풍요했다. 지금은 풍요하지만 마음이 척박하다. 정신의 풍요보다는 생활의 편리함, 개성이나 원시성보다 기준이나 규격화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비평가 Philip Gerber는 크라우드 가족이 보여주는 옛 이상주의와 새로운 실용주의적 갈등을 이렇게 말한다.

In the farm home on Lovely Creek, life is changing, Mrs. Wheeler, old Mahailey, and Claude cling to what they can of an idealism that is only a memory. Mr. Wheeler and the other sons, Bayliss and Ralph, embrace new pragmatic ways. The struggle within the Wheeler family is the struggle within the nation.”

사라졌으나 아직도 어른대는 옛 이상주의의 잔영과 밀려들지만 아직 완전히 압도하지 못한 새로운 실용주의의 갈등은 단지 크라우드의 가족 내의 상황일뿐 아니라 1920년대 미국이 맞던 위기였다. 중부의 소도시를 배경으로한 루이스의 「Babbitt」이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시대를 정확히 해부하고 풍자했다면 캐더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하나 가득 끌어안고> 암울한 시선으로 자기 시대를 바라보았던 것 같다.

이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단편, “Neighbour Rosicky” (1928)는 이와 같은 암울한 시선을 말끔히 거두고 산뜻하고 아름다운 산문과 압축된 주제로서 네브라스카 지역소설을 총정리하는 느낌을 준다.

65세의 농부 로지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온다. 노쇠한 탓으로 심장이 약해졌으니 농장 일과 같은 노동은 피하라는 충고이다. 늘 명랑하고 배사에 서두르는 법이 없는 그는 5명의 애들과 성실한 아내를 가진 행복한 가정이다. 추상성을 믿지 않고 평범한 삶이 주는 조그만 안락에서 평화와 휴식을 찾는 그는 욕심이 없는 생의 판조자이다. 뜨겁고 진한 크립넨은 커피와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요리, 그리고 아이들에 둘러싸인 떠들석한 저녁식탁이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이다. 평생을 자연과 더불어 열심히 일해왔고 그 대가로 얻은 가정과 농장은 그에게 자존심과 긍지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시골출신이고 그는 도시출신이지만 둘은 삶에 대한 철학을 공유한다. 그들은 재산의 축적보다 매 순간을 평안하고 여유있게 즐기고 싶어한다. 은행에 한푼이라도 더 저축하려 들기보다 아이들에게 풍족히 먹이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결코 남에게 빚을 지는 일은 없다. 그들에게 땅이란 자연의 변화를 지켜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위해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존재의미>일 뿐 그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여자와 결혼한 아들이 매지를 떠날까 걱정이다.

그는 과거를 회상한다. 양복제단사로 런던에서 굶주리며 살던 기억, 도시생활의 뿌리없음을 절감하던 뉴욕시절이 떠오른다.

It struck young Rosicky that this was the trouble with big cities; they built you in from the earth itself, cemented you away from any contact with the ground. You lived in an unnatural world, like the fish in an aquarium, who were probably much more comfortable than they ever were in the sea.⁸⁾

7) Phillip Gerber, p.106.

8) Willa Cather, *Obscure Destinies* (New York: Alfred A. Knopf, 1932, 1948), p.31.

허공에 떠돌며 슬로서 자유와 가능성의 환상을 무마시키던 그가 대지에 밭을 딛고자 평원을 찾은 것은 35세 때였다. 무한히 열린 세계에서 스스로의 의지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문필 자리를 골라놓은 로지키는 큰 아들 부부가 회의와 불안을 떨치고 농장을 지켜주기 원하는듯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숨을 거둔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타인의 집에서 식사의 즐거움을 맛볼 수 밖에 없던 외로운 의사는 그의 무덤을 보며 이웃 영감, 로지키의 삶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가족과 농장을 지켜보며 늘 함께 숨쉴 수 있는 곳에 문혔기 때문이다.

“이웃 영감, 로지키”는 간략하고 압축되고 아름다운 산문 속에 캐더의 사상을 농축시킨 단편이다. 안정과 개척, 도시와 농촌의 비교는 로지키라는 한 인물의 회고 속에서 유기적으로 서술되고 네브라스카 지역의 특성과 문학작품으로서의 보편적 주제는 집힌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완전히 용해되어 있다. 문장과 스타일이나 자궁의 철학, 땅과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치관등은 헤밍웨이를 연상시키면서도 물질이나 재산의 축적을 경고하는 부분에서는 피체랄드를 생각나게도 한다. 작가는 「나의 안토니아」와 「우리가운데 한 사람」의 경우처럼 향수에 젖어 현재를 불만스러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화와 관조의 완벽한 경지에서 겸허한 시선으로 현재를 긍정한다.

지금까지 윌라 캐더의 작품 가운데서 네브라스카의 농촌을 배경삼은 4 작품을 골라 지역성과 보편성을 살펴보았다. 삶의 반쪽을 평원에서 보냈고 다른 반쪽을 대도시에서 보낸 그녀는 평원에서 보낸 시절을 늘 그리워하며 회고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 보았다. 그것은 침체보다 개척을, 물질보다 원시적 생명력을, 규격화 보다는 개성을 그리워하는 개인의 향수였으며 기계와 물질문명의 오염에 대한 그 시대의 경고이기도 했다. 이제 캐더의 작품과 동시대 작가들인 드라이저, 루이스, 헤밍웨이, 피체랄드의 것을 간략히 비교하여 캐더가 이들 작가들 보다 비평적 언급을 덜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 한다.

〈캐더 작품의 시대성〉

1910년 부터 1930년 사이, 드라이저나 루이스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견고한 사실주의 기법으로 우회없이 직접 파고든다. 드라이저는 가난한 시골출신의 주인공들이 대도시에서 어떻게 생존 혹은 희생되는가 하는 문제에 정확하고 냉엄한 시선을 던진다. 거의 과학적인 정도의 관찰력으로 주인공의 심리나 부딪치는 상황을 직시하여 그들이 생존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묘사한다. 그리하여 본능과 환경의 산물로서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파헤치므로서 당시 미국 자연주의 문학의 분위기를 수렴한 것이다. 루이스는 중소도시의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들이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본능과 우매함을 풍자한다. 역시 인간의 자연주의적 속성을 드러낸다. 이에 비하여 캐더는 견고한 사실주의 기법이라기 보다 상상 속에서 채택된 과거를 에피소드식으로 엮어가는 기법을 쓴다. 그리하여 현실의 문제를 냉정하게 파헤친다기 보다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현실을 도피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캐더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본능과 환경의 산물이라는 어두운 자연주의 색채를 띄운다. 기보다 자연 속의 일부로서 상상력과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약한 세기전의 분위기를 재현한다. 그녀의 작품에서 현재의 문제는 오직 간접적으로 대비될 뿐이다.

견고한 사실주의 기법에 자연주의적 분위기를 수렴했던 당대 작가들과 다름을 드러내는 그녀의 작품은 헤밍웨이나 피체랄드와 같은 모더니즘 초기현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간략하고 압축된 산문형식, 자공의 철학이나 자연에 대한 태도 등이 헤밍웨이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크라우드의 경우처럼 자존을 지키기 위해 상황과의 냉정한 결별을 하지 못한다. 그녀가 되돌아보는 과거의 도덕이 헤밍웨이의 주제와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뿐 상황을 직시하고 그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 헤밍웨이와는 다른 것이다. 재산과 돈의 문제도 언급되지만 피체랄드처럼 그것을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저 보편가치로서 돈보다 인간성이 중시될 뿐이다.

캐더의 작품에 대해 시대성의 결핍을 운운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존·챔버린(John Chamberlain)은 “좋은 산문으로 충분한 건 아니다” 라고 말했는가 하면 클리프턴 페디먼은 그녀의 작품이 1920 년대와 30 년대의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⁹⁾ 지역의 특성을 살리라는 우정어린 충고에서 창작을 시작했고 그 지역성의 한계를 벗어나려 애썼던 캐더였기에 그녀의 작품이 보편 주제를 담고 있음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당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부하지 못하므로써 시대의식이 결핍된 것은 그녀가 극복하지 못한 마지막 함정이 아니었나 싶다. 과거에서 소재를 택했으나 그것은 현실도피가 아니고 현재와의 비교를 위해서였다고 방어할 수도 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동시대의 문제를 언급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해도 과거의 향수가 지나치게 비대하여 현재를 직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허비·버터필드(Herbie Butterfield)는 최근의 논문에서 캐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 What she was not, unlike so many of her contemporaries, was realist; what she was not, unlike so many of her successors, was fantasist; her art was greater than either's, that of imaginative truth.”¹⁰⁾

사실주의 작가도 환상주의 작가도 아니고 진실을 상상력으로 채색시킨 작가였기에 오히려 최근의 기법과 유사하다는 이 결론은 캐더에 대한 재인식을 암시하지만 당대의 지적 풍토를 의면했다는 비난에 대한 충분한 방어는 되지 못한다.

윌라 캐더의 베브라스카, 그곳은 한 작가가 뿌리내린 고향이었고 <상상속의 리얼리티>였다. 그러나 한 작가의 진수는 동시에 그녀의 한계이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에서 현재란 늘 과거의 환상 결을 맺도는 조연 배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9) Philip Gerber, pp.157-164 참조. Cather 의 작품에 나타난 시대의식에 대한 공격, 방어, 평가들이 서술되어 있다.

10) Herbie Butterfield, "Willis Cather" in *American Fiction: New Readings* ed. Richard Gray (London: Vision Press, 1983), p.148.